

지역 매 아 리

부안군 보건소, 건강조사 실시

부안군 보건소는 2018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까지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민에게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건지표를 마련하려고 시행되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대 1 면접으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201개 항목으로 건강행태,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교육 및 경제활동 등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지역별 비만을 산출과 고혈압 관련 지표의 보안을 위해 혈압측정 신체계측 조사를 도입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지역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73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위국헌신을 한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에 대한 회생과 공훈에 경의를 표하며 위문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창군에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이 있으며, 이번 위문은 국내항일운동을 한 독립유공자 장형식 선생의 자녀 장계남씨와 임시정부 전복감독목은 군자금을 모으며 독립운동을 한 노진룡 선생의 자녀 노영복씨,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고창 출신의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인 신중주 선생의 손녀 신태순씨를 찾아 위문했다.

군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우리 사회에 자발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풍토"라며 "앞으로도 보존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정읍 '구절초 꽃 축제'



장기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뽐내는 현상이 있다. 전국 대표 가을 축제로서의 확실한 명성을 다진 꽃 축제 준비 현상이 바로 그곳. 매년 가을이면 은은한 향과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구절초를 테마로 펼쳐지는 '구절초 꽃 축제'가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구절초 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구절초 꽃 축제는 '가을의 전령'인 구절초를 주제로 열리는 전국 대표 가을축제이다. 축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2014년)'에 선정되기도 했다. 축제의 주 무대는 은은한 색과 향의 구절초, 옥정호의 맑은 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는 구절초 테마공원이다. 시는 "전국 가을 만만 축제 20선"과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에 여러 차례 선정될 만큼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구절초 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무더위를 잊고 축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축제 명칭 변경이다. 기존의 축제명인 '구절초 축제'를 '구절초 꽃 축제'로 바꿨다. '꽃' 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관광객과 교감하는 꽃길 이벤트와 무대 외 공연이 강화된다. 축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를 위해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인 참여도 확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제 콘셉트(concept)인 '슬로우'와 함께하는 '슬로투어'에 맞는 6개 분야 34개 프로그램도 확정됐다. 공연행사로 소나무와 구절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꽃밭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광장 문화공연', '전통한옥 마당 연주회' 등이 눈에 띈다.

체험행사는 '사람의 우체통'과 '구절초 족욕체험', '하늘에서 본 구절초 세상', '꽃길에서 만난 유쾌한 주막', '구절초 꽃길 별빛야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외전시로 '2018 유색비 아트경관', '구절초 스토리텔링' 등이 마련되고 공간연출 행사로 '구절초 하늘 고깃길', 영화 '궁합', '구절초 러브스토리 길' 등이 준비된다.

시는 축제와 관련, 축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번의 축제 전문가 컨설팅과 수차례 내부협의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정읍지역 참가 마을·단체 82개소도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했다.

현재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점검과 함께 축제 주 무대인 구절초 테마공원 내 구절초 경관 조성 및 식생 관리, 공원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축제장 진입 여건 개선 등 축제장 주변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복날' 소화행 즐기세요

17일 개최... 버블쇼·갈라쇼 등 프로그램 다채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고창 복날'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복날을 맞아 방문객들에게 다 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고창복날' 행사를 개최한다.

'고창 복날'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고창 복날의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융·복합화 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복날 6차산업교육, 야간경관조성,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했으며, 특히 매년 6월 20일을 '고창복날'로 지정된 '복날'이 선포식 및 음악여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복날자클러스터 일원에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더위를 잊는 즐거운 체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고창복날'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부안면 용산리 복날자클러스터 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마술쇼와 버블쇼, 눈과 귀를 사로잡을 뮤지컬 갈라쇼,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복날자 물놀이장, 고창 농특산물 판매장과 체험부스도 상시 운영된다.

고창 복날 6차산업화 사업단장인 정토진 부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복날자클러스터가 관광자원으로, 특히 매년 6월 20일을 '고창복날'로 지정된 '복날'이 선포식 및 음악여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복날자클러스터 일원에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더위를 잊는 즐거운 체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국비 확보 발걸음 분주

국비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유진섭 시장이 13일에도 분주할 발걸음을 이어갔다.

유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구유철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여당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시장은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염소 전용 도축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총 7건에 137억여원의 국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산내 하례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관련, 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울

해 사적 543호로 지정된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함은 물론 일대를 의미 있는 역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국비에 반영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대규모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의 적극 협력을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정토진 부군수, 폭염과 가뭄피해지역 현장점검

고창군 정토진 부군수가 폭염과 가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찾아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정 부군수는 지난 12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 중 아산·성송·대산·흥덕면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건설도시과장과 해당 읍·면장과 용수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토진 부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상시적인 가뭄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고 있어 가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합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지속되는 가뭄해소를 위해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즉시 활용하여 용수공급을 최대화 하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군은 예비비 2억25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하상굴착 및 읍·면에 양수 장비를 추가 배정하였으며, 18억71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용 관정 보조사업,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등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습상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하고 각 읍·면에서는 다단양수를 통하여 물 부족 지역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방위 교육·시민강좌 성황리에 끝나

올해 하반기 보충 1차 교육과 시민강좌가 성공리에 끝났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1일까지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이하 민방위 교육)과 시민강좌를 성황리에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강좌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민방위 대원(1년차~4년차)을 비롯 관심 있는 시민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무료로 진행된 강좌는 평일과 주말(8월 11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8월 10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됐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국가 안보 위기 의식 함양과 올바른 국가관, 그리고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더불어 각종 재난재해와 비상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시민강좌는 거소(居所)와 관계없이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됐다. 평일 강좌뿐만 아니라 휴무일 강좌와 야간 강좌를 개설함



으로써 주중시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수강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백정기 의사의 항일 무장투쟁(이갑상)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야기(김재영) ▲일제 강점기 친일과 항일 역사(곽형주) ▲민족의 수난 역사는 말한다(한수연) ▲종류와 수탈 그리고 풍류와 저항(유종국)을 비롯 ▲지진대피요령 교육과 심폐 소생술 응급 처치(김정옥, 이유경, 이은순) 교육도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재난재해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대응력을 높여 시민 스스로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강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a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